

환경체험활동이 학생들의 환경관련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이상균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자원을 활용한 환경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후 초등학생들의 환경소양과 환경 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환경체험 캠프에 참가한 진해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학년 38명을 대상으로 지역환경자원을 활용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실시 전 후의 환경 소양과 환경 친화적 태도에 대한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 진행단계는 먼저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진해 지역에 있는 환경자원을 조사하고 사전답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지도요소를 추출하였다. 수집 자료와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자료는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체험캠프를 통해 적용하였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환경에 관한 정의적 영역에 관한 효과를 밝히기 위해, 환경 소양검사로 Dunlap et al.(2000)의 수정 NEP Scale 15문항을 토대로 Manoli et al.(2007)이 개발한 NEP-Scale for Children의 10문항을 초등학교 5학년들의 수준에 맞게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며, 환경 친화적 행동 검사로는 CHEAKS(Children's Environment Attitude and Knowledge)을 천(2005)이 번안하여 활용한 검사도구 중 행동적 영역의 내용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지역 환경자원을 활용한 환경체험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환경관련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소양에 관한 검사 결과 환경소양 전체의 사전검사 평균은 3.59, 표준편차 .50이었으며, 사후 검사의 평균은 3.87이고 표준편차 .38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지역 환경 자원을 활용한 환경 체험프로그램의 적용이 5학년 학생들의 환경 소양 함양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하위

요소별로는 사전검사 결과 ‘자연의 권리’ 평균 3.50, 표준편차 .78, ‘환경위기’ 평균 3.84, 표준편차 .48, ‘인간예외주의’ 평균 3.42, 표준편차 .75로 나타나, 환경위기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간예외주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 검사 결과로는 ‘자연의 권리’ 평균 3.80, 표준편차 .66, ‘환경위기’ 평균 3.91, 표준편차 .43, ‘인간예외주의’ 평균 3.87, 표준편차 .38로 환경위기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의 권리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차이로는 자연의 권리 0.3점, 환경위기 0.07점, 인간예외주의 0.2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사전 검사에서 환경 친화적 행동에 대한 평균은 3.21, 표준편차 .51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사의 평균은 3.32이고 표준편차 .34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환경 자원을 활용한 환경 체험 프로그램이 5학년 학생들의 환경 친화적 행동 변화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역 환경교육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환경소양과 환경 친화적 행동 변화가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지역환경자원을 활용한 환경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환경소양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고 듣는 체험학습 형태의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였지만 앞으로 연구는 환경에 대한 탐구를 통해 환경 구성요소와 그 기능을 이해하여 보존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체험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발 된 프로그램을 단기기간의 환경체험 캠프에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보다 장기적으로 적용하여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